국내
긴급시황

2026. 6. 8.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증시 하락 배경 점검과 전망

美 고용 서프라이즈와 AI 수익성 우려로 반도체주 중심 하락

코스피, 3월 이후 처음으로 1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

KEY DRIVER

- 금일 코스피가 6%대, 코스닥이 7%대 하락 중입니다(11시 기준). 정규장 개시 직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지난 3월 미국-이란 전쟁 이후 처음으로 코스피에서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이번 조정은 펀더멘털의 훼손이 아닌, 상승 피로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 욕구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하락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미국 5월 고용 지표 서프라이즈가 금리 인상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5월 비농업 고용은 17만 2천 건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 8만 8천 건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3, 4월 수치도 도합 9만 3천 건 상향 조정됐습니다. 견조한 美 고용 상황에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했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심리적 저항선인 4.5%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용 지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북중미 월드컵과 메모리얼데이 연휴로 인해 레저·접객, 정부 일자리 등 일시적 성격의 고용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조짐도 제한적입니다. 단일 고용 지표만으로 연준이 실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 둘째, 반도체 실적에 대한 높아진 기대치와 하이퍼스케일러의 AI 투자 확대에 따른 수익성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지난주 브로드컴은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전망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에 매도세를 촉발했습니다. 여기에 알파벳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이어 메타도 유상증자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지출 부담과 수익화 시점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됐습니다.
- 셋째, 수급 관련 우려가 증시에 하락 압력을 더했습니다. 최근의 증시 강세 과정에서 신용 잔고 증가와 레버리지 포지션 확대가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됐습니다. 아울러 달러/원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점도 추가적인 외국인 수급 이탈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 금요일 스페이스X IPO를 앞두고 일부 투자자들의 자금 확보 수요가 주도주의 차익 실현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이번 조정은 AI 반도체 업황의 훼손보다는 과열된 포지셔닝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가깝다고 판단합니다. 국내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는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하락으로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번 주 미국 5월 CPI 발표(6/10)와 한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6/11), 스페이스X 상장(6/12) 등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저가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단기 변동성 국면을 활용한 AI 주도주 중심의 비중 확대 전략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